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금강산



4

2026년

루게 제44호 월간

표지: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은 재일동포들

고덕우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사상리론적으로 안받침하는 연구중심, 혁명가양성의 최고전당으로 꾸려진 학교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2 || 송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

4 || 광학공예 《축하문》

대담

5 || 영원한 국책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6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8 || 후대들을 위하여

수기

12 || 학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일화

13 || 위민헌신의 나날에

14 || 조선식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2)

16 || 류다른 기쁨을 안고

18 ||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상기

20 || 그림처럼 아름답다

20 || 수십번 왔건만

일기

21 || 조국의 기억속에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22 || 세계선수권보유자들을 키운 감독

고향소식

24 || 황주땅의 변모

28 || 증산으로 들끓는 상원

32 || 설비현대화에 힘을 넣어

33 || 리리움이온축전지

34 || 마두산경제연합회

36 || 특색있는 통합병설학교

40 || 꼬마가야금연주가

42 || 열성 《학부형들》

44 || 어린 생명을 위해 바친 47일

46 || 효능높은 《범골》기능성제품들

48 ||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기지 빙상관

52 || 전통적인 백화리용품습

54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8)

전설

56 || 속떡에 깃든 시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예로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미덕이고 위인이 지닌 출중한 품모의 하나로 일러왔다.

친손자의 《말》이 되었다는 어느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후세에 미담으로 전해져오고있지만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운 위인은 없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새 역사를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유격구들에 아동단 학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아이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해 할일이 그처럼 많으신 속에서도 름시인민위원회의 중요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토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고 하시였다.

이렇듯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그이의 사랑속에 외진 섬마을을 비롯하여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학교가 일떠서고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이어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제일 즐거워하시였다.

나라의 명산, 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아이들의 야영소를 먼저 세우실 구상을 펼치시였고 명당 자리들을 보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학교 건설부터 생각하신 그이이시였다.

평양시의 명당자리인 장대재에 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도 후대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궁전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일군들이 올린

설계도를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궁전을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짓자고 하시면서 설계일군들이 예상한 건축면적의 6배가 넘는 5만㎡의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시였다.

그로부터 몇해후 평양학생소년궁전개관행사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궁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며 기계공장 몇개 건평에 맞먹는 대단히 큰 건물이 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학생소년들을 훌륭하게 키울수만 있다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날 궁전을 돌아보시며 시종 만시름을 잊으신듯 그리도 기뻐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이께서 아이들의 생활의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신 이야기는 많고도 많다.

언제인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병원에 입원한 동생을 찾아가는 처녀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보내시고 눈보라치는 길가에 오래도록 서계시였으며 지방의 한 학교를 찾으시어서는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고 또 보시며 내 60평생에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라고,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10년은 젊어지는것같다고 하시며 해마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꼭꼭 보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였다.

하기에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만 하면 스스럼없이 아버지라 부르며 그이의 품에 안기였다.

언제인가 어느한 나라의 출판물에는 《세상에 온 나라의 아이들이 국가수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조선은 아이들의 왕국이다. 여기에는 국책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평한 기자의 글이 실렸다.

진정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정답게 불러주시며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글 변진혁

광학공예 《축하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후꾸오까현본부에서 드린 선물
1982년 4월



영원한 국책 속에

- 평양학생교복공장 지배인 김춘철과 나눈 대담 -



기자: 개학날을 앞두고 새 교복을 떨쳐입은 학생들을 보니 수도의 거리가 더 환해지는것 같습니다.

지배인: 정말 그렇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오가는 학생들을 볼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너나없이 자식을 가진 학부모이지만 실지는 국가가 학부모의 무거운 의무를 수행하고있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높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정책으로 하여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학용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수시로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였고 교종별 남, 녀학생들의 새 교복도안들을 보아주시느라 오랜 시간도 바치시였습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서 새년도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생산과 공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실행방도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2023년 2월 학생교복생산을 위한 새 몸재기지도서가 전국각지에 시달된 때로부터 지난 년간 여러 차례의 전국적인 학생교복품질회가 진행되고 각 도들 사이, 공장들사이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들이 교류, 이전되어 학생교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기자: 소학교에 다니는 우리아들도 새 교복을 공급받았는데 재봉땀 한땀한땀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지성을 헤아리게 됩니다.

지배인: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모두가 기대앞에 새 교복을 입은 자식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교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추 하나를 달아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달아줍니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치마와 바지길이에 5cm의 여유를 주며 주머니들에는 교복색갈의 자그마한 실토리도 넣어줍니다. 그것은 단추가 떨어지거나 혼솔이 러지면 바로 잡는데 리용합니다.

세부세부, 요소요소에 진정이 깃든 교복들에는 이름, 학년, 반, 옷호수가 적혀진 표가 붙어있고 그것은 구김살 하나 없이 운반되어 학생들에게 공급됩니다.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고싶어 학교에 나가보았

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들도 기뻐합니다.

정말이지 일을 하고 또 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기자: 제가 듣기에는 지난해 공장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저저마다 공장의 리득금에 대해서 물었다던데 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지배인: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의 현실을 처음 대하게 되는 사람들은 좀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대체로 공장이라고 하면 리윤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생산단위들로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리윤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용품, 신발, 가방을 보장하는 공장들이 다 그러하다, 아이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것, 힘겨울수록 아이들에게 지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나라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이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기자: 국가의 혜택속에 우리 부모들은 개학날이 되여도 자식을 입힐 걱정, 학용품을 사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해외동포들도 조국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싶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 *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1930년 가을의 첫 상봉때 그는 벌써 나에게 지울수 없는 믿음을 남기었다. 그때 나는 오중화의 집에서 그와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담화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 울타리밖에 역대우같은 청년들이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서있었다. 동구밖에도 그런 청년들이 여러명 늘어서있었다.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오중화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품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수완은 군중을 끄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중화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리발기를 하나 갖추어놓고 가위계라는 조직부터 먼저 내온 다음 거기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그 당시 일반리발소의 리발료금은 15전이였다.

그러나 오중화는 5전씩 받았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는 계에 망라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었다. 사람들은 낮은 값으로 리발을 하고 책을 보는 데에 계에 열심히 모여들었다. 오중화는 그런 틈을 타서 계원들을 교양하였다.

가위계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을 초보적으로 계몽시킨 다음 이전날의 동창회, 학우회, 친목회 등 계몽단체들을 통합하여 령동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친목회는 돈화와 할바령동쪽지구인 연길, 훈춘, 화룡, 왕청일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조직이였다.

오중화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연극공연

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면 한 개 분대도 넘는 4촌들이 달라붙어 배역도 나누고 장치도 만들고 지휘들끼리 연출도 하여 미끈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군중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놓고는 자기 가문의 사람들부터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다 조직성원으로 흡수하였다. 겨울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는 강상준, 조창덕, 유세룡 등과 함께 항일유격대결성준비작업의 중요고리의 하나인 무기획득공작에 참가하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취해낸 무기들은 최인준, 한홍권, 강상준, 김은식 등의 투사들이 망라되어있는 별동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큰 밑천으로 되었다. 오중화는 우리의 의도에 맞게 적의 1차공격목표로 지목되어있는 5구의 일부 지역을 반유격구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는 적통치구역에 활동거점을 꾸리는 과업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도문의 천일인쇄소는 그가 꾸려놓은 중요한 활동거점으로서 혁명군의 귀와 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적들은 오중화와 그의 가문을 눈에 든 가지처럼 보고 그 일족을 멸살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였다. 1933년 봄에 유격대의 한 소조는 룡정 령사관에서 석현경찰서에 보내는 비밀문건을 압수하였다. 그것은 오씨일가를 전멸시키라는 살인지령서였다.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은 즉시에 유격대를 출동시켜 구제공작을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31명이나 되는 오씨네 식구들을 눈깜짝할사이에 심리평

으로 소개시키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투지를 가지고 단거리륙상선수와의 같이 숨가쁜 속도로 일생을 줄달음쳐 살아오던 오중화는 1933년 여름 북봉오동의 비밀아지트에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체포현장에서 무참히 그를 살해하였다. 오중화가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마쳤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목격한 증견자는 없다. 그와 그의 동료들을 처형한 살인마들만이 그것을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고 학살현장에서 사라져버리었다.

오래희로인이 주먹을 부르쥐고 심리평에서 북봉오동으로 뛰어갔을 때 오중화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비밀아지트주변에 눈을 뜬채 쓰러져 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아직 채 꺼지지 않은 그 눈동자에는 그가 살아서 그렇게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자주 쳐다보던 유격구의 푸른 하늘이 비껴 있었다.

그러나 입만은 생시보다 더 굳게 다물려있었다. 오래희로인은 그 입매만 보고서도 아들이 조직의 비밀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장해서 로인은 더 슬프게 울었다. 세상에 태어나 34해밖에 살지 못한 아들이였지만 그 아들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오래 산다고 더 큰 락을 누린다는 법이야 없지. 그렇지만 아들아, 너는 너무도 일찌기 이 애비의 곁을 하직하였구나. 너를 그렇게도 아끼는 김일성장군이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

그때 로인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오중화가 학살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도 많은 걸음을 걷고 그렇게도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불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이다지도 조용히 가버릴수 있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오중화의 곁에는 그를 바래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채 대지우에 쓰러졌다.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길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말이였을가? 반유격구건설도 끝났으니 또 새로운 과업을 맡고싶었노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오중화가 살아있었더라면 나는 그에게 더 큰 중책을 맡기였을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의 룰리에서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것이 최대의 사랑이고 최고의 믿음이다.

우리 혁명은 간도일각에서 만사람의 총애를 받던 또 한명의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인민에게는 긍지를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성실하고 강직한 동량지재를 잃었다. 그것은 동만땅에서 노도치며 전진해가는 우리 혁명의 양양을 위해 정녕 가슴아픈 손실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그 장렬한 죽음으로써 군중을 각성시키고 결기시키었다. 그는 희생되었지만 그가 피로 적시고 간 반유격구들에서는 항일대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있었다.

(끝)

후대들을 위하여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하다면 전국의 수백만의 아이들을 떠맡아안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들 것인가.

우리 당의 육아정책의 혜택속에 튼튼하게 자라는 행복동이들, 새 교복에 학용품과 책가방을 일식으로 받아안고 학교들마다에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펴는 아이들의 모습, 한점의 그늘없이 자라는 전국의 애육원, 육아원, 초등 및 중등학원의 원아들...

온 나라 인민이 평범한 생활속에 속속들이 와 닿는 후대들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두고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미교포는 자기의 수기에 이런 글을 남긴적이 있다.

《공화국에 가면 래일에 대한 확신을 걸음 걸음 피부로 느낄수 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새세대, 아들딸들을 위한 조국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세대를 이어 계속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고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어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과연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 것인가.

그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우리 당의 제일 중대사로, 국사중의 제1국사로 내세우시고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와 같은 정과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이께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 하지 못한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2012년 9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언제인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각이한 나라들의 교육기간과 경제성장률의 호상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기간을 1년만 늘여도 경제성장률이 9%이상 높아진다는 견해를 발표한적이 있다. 이것은 교육기간을 늘이면 늘일수록 그만큼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데는 너무도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우선적으로 집중하였으며 결과 2014년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그것은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이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천사만사가운데서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만도 국가의 중요회의들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제가 하나의 의정으로 토의되고 정책으로 책정되였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할데 대한 육아정책이 책정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을 당과 정부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학용품들이 빠짐없이 공급되고있다.

제4차전원회의,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문제가 중요의정으로 토의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앞으로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모든것이 풍족해서도 아니였다.

건국 이래 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방역대전을 비롯하여 류레없는 난관들을 수없이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방대해도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항상 국가정책의 제1순위에 놓이였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책정된 육아정책에 의하여 학령전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이 공급되고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고있다.

주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그에 해당한 하루 젓제품 소요량까지 계산해보시고 특별조치들을 련속 취해주시며 젓생산과 가공,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대책해주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오늘 전국도처에는 젓소목장, 염소목장, 젓가공기지들이 일떠서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젓제품이 공급되는 감동적

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학용품들마다에도 어려웠다.

2021년 12월 새년도 자금타산안을 세운 정형을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하시며 그 실행을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새해의 첫날 천사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몸소 학생교복견본을 보아주신 사연이며 전국도처에 학생교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가지가지의 사실들은 수없이 많다.

이제는 《민들레》학습장과 《소나무》책가방, 《해바라기》학용품이라는 부름이 우리 아이들과 떼어놓을수 없는 친숙한 언어로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원아들에게도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자랄수 있게 나라의 곳곳에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 및 중등학교를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솔직하게 말하여 현지도도로 먼길을 떠날 때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 잠시라도 쉬고싶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절대로 멈춰서도 돌아서도 안되고 쓰러져도 안된다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들고 힘이 나군 한다는 심중의 말씀을 하시였다.

바로 그이의 이 말씀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나라가 시련속에서도 주저않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으며 혁명의 새 승리를 어떻게 앞당겨와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있다.

진정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후대들의 웃음은 영원하고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글 김성경

사진 조선중앙통신



학업은 중장되지 않았다

- 중앙교수강습소 소장 리현의 수기 -

올해 개학날을 맞으며 나의 손전화기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학생들에게서 많은 통보문들이 왔습니다.

그들로 말하면 2년전 큰물피해를 입은 후 평양에 올라와서 공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잘하고있고 여전히 최우등을 하고있다는 자랑 등이 담겨져있는 글줄을 읽어갈수록 나의 가슴은 뜨거워만졌습니다.

불현듯 학생들과 함께 보낸 130여일의 나날들이 돌이켜졌습니다.

2024년 7월말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하여 북부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서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강력한 력량이 피해복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지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었습니다.

수해지역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으시어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신 그이께서는 그해 8월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살림집건설이 끝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의 두석달기간에 제일 걸린 문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문제이라고, 보육과 교양, 교육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립시학습공간을 마련해놓고 평양시안의 소학교, 중학교, 학령전교육기관들의 교원, 교양원들을 망라하는 립시기동교육대를 조직하여 방학이 끝난 후부터 피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



없이 진행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무리 조건이 불리해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평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으며 그들은 보육과 교육, 생활과 휴식조건 등이 원만히 갖추어진 곳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수해지

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이동교육대를 책임진 나는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고 수해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교원들이 수해지역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계발식, 탐구식, 토론식교수방법을 비롯한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수업을 준비수업과 기본수업, 다지기수업으로 나누고 학급에 따라 그 비중을 다르게 하면서도 수업시간뿐 아니라 과외시간까지 과정안에 포함시켜 학습공간을 넓였습니다.

나날이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만 갔고 어느 교실에 가보아도 《나도 10점을 맞았다!》 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수해지역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중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들에 입학하였습니다.

진정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중단없이 실행해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동교육대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던 그 나날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교육을 미래를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데서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 * *

일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즉석에서 밝혀주신 명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6년 12월 어느날 한 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었을 때였다.

이날 민속식사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방은 어떻게 리용하려고 하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었다.

료리실습기간에 민속료리를 만든 야영생들이 이 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소년단야영소에 민속식사실을 따로 꾸려놓는것은 맞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방의 용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민속식사실은 료리도서실같은것으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료리방법과 관련한 도서들을 비치해놓고 료리사들이 여가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료리기술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음식도 해먹이도록 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준 또 하나의 뜻깊은 강의였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면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몇달 앞둔 2022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년단대회를 겨울에 하는데 맞게 대표들에게 오리털솜옷과 겨울신발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이미전에 소년단대회대표들에게 새 교복을 잘 만들어 입히도록 하였는데 그들에게 겨울옷까지 멋있게 만들어 입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울것이라고 하시는 그이의 안팎에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을 그려보시는듯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소년단대회대표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극한 사랑이 깃든 새 교복과 새 솜옷을 입고 평양으로 모여오게 되었다.

새로 포함된 야영일정

2025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야영생들의 일정계획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의 해수욕을 반영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사실 지난해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진행된 이후 황홀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에 남먼저 가고싶은것은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더우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학생소년들의 심정은 더하였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시고 그이께서는 이렇듯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것이다.

하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야영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마식령스키장이 건설되었을 때에는 겨울철야영도 조직하여 야영생들이 스키도 타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그들이 타고다닐 빠스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런데 조선동해의 명승지에 세계적인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을 또다시 불러주시었으니 그이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조선식사회주의전면발전 리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2)

중국 료녕성 중조문화교류중심 부주임 김일

(전호에서 계속)

조선의 사회주의전면발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논문, 사설들을 탐독하고 현실에 펼쳐지는 조선의 혁명실천성과들을 고찰해보면 조선은 분명히 자기의 사상과 리론, 방법과 방식으로 전사회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의 특징은 첫째로 그 독창성에 있다.

그것은 이 리론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으로 조선을 부강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처음으로 창시하신 조선식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이기때문이다. 이 리론의 사상적출발점은 맑스주의인간전면발전론에 근거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선의 실정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인민위천,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혁명사상의 산물로서 리론의 구성이나 내용에서 인민성,

혁명성, 사회주의성격이 뚜렷하고 독창적이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발기와 실천과정을 고찰하면 이 방식이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오로지 조선에서만 실행될수 있는 독창적인 전면발전방식이라는것을 충분히 감지할수 있다.

특징은 둘째로 실천방식이 독특하고 효율적이라는것이다.

조선은 사회의 전면적발전을 자본의 힘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실천해나가고있는데 자본주의사회와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이 있다.

현재 조선에서는 지방이 발전하고 농촌이 변하는 위대한혁명을 실천해가고있다.

목적은 도시와 농촌, 수도와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차이를 빠른 시일내에 줄이고 온 나라

가 균형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려는것이다.

지방건설에 군인건설부대가 파견되고 도시의 모든 단위들이 동원되며 일터마다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전국이 마치 하나의 사회주의대가 정처럼 살며 일해나가는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육되고 무장된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것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눈부신 건설성과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최근시기 삼지연시로부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 일떠섰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서방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어느한 나라의 의회에서는 지하철도개건방안을 10여년이 넘게 토의하였으나 아직도 합의를 얻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새시대에 들어선 조선은 《착공이자 준공》이라고 하니 사회발전의 속도와 효율에 대해서는 비교할 방법이 없다.

머지않아 조선은 누구나 고르고 행복하게 잘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될것이라는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의 특징은 셋째로 사상의식의 변화와 발전으로 지속적인 전면부흥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새시대에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상정신면에서 커다란 긍정적변화가 일어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가 끊임없이 앙양되고있다.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헐뜯고있다. 그들은 조선이 전면발전, 전면부흥에로 나아가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레하면 조선과 적대감정을 가진 어느한 나라의 연구기관은 2022년 3월말에 《조선<사회주의전면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장편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나는 이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구를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회주의전면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발전로선을 시정하는 균형발전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의 목적으로 부활한 가운데 사회주의전면발전론이 <당의사상>이자 <김정은사상>으로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은 이르지만 앞으로 농촌개조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랭전이후 조선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재고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

여기에서 보면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부강발전을 본질적으로 원하지 않으며 더우기 조선사회가 《김정은사상화》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조선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착공식과 준공식은 적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멸시와 무자비한 타격으로 된다고 볼수 있다.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새시대에 들어선 오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조선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고 사상의식적으로 어떤 긍정적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따라 조선의 미래가 결정될것이다. 한마디로 오로지 김정은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높여갈수 있고 슬기로운 지혜와 근면한 두손으로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장성과 찬란한 사회주의문화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을것이라는것이다.

현재 세계질서는 아주 문란하고 전쟁과 경제의 저성장으로 많은 나라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있다.

그와 반면에 조선은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분명한것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국력경쟁은 언제 한번도 정지된적이 없으며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국제질서에 의연히 적용된다는것을 누구나 실감하고있다는것이다.

조선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통일된 사상의 힘이라는 독특한 국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전장에 적용되면 영웅적신화를 창조하고 경제건설에 적용되면 생산력으로 작용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일심단결하여 김정은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갈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된 인민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게 될것이다.

(끝)

류다른 기쁨을 안고

-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평양 방문 -



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룡성과 발전에 뜻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는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시자 축하단성원들은 이역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진정이 가슴에 어려와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한 그들은



지난 2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고덕우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아홉번째로 열리는 당대회를 평양에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류다른 기쁨에 넘쳐있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대회개회사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을 되새겨보며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포들은 만경대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평양종합병원 등도 참관하였다. 금수산지구에 일떠선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축하단성원들은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령도활동을 교육실천적으로, 학술적으로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고있는 학교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었다.

건축양상으로부터 모든 구성요소들과 공간환경이 환자들의 정신심리적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의료봉사의 과학성, 원활성을 보장할수 있게 꾸



려진 평양종합병원은 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뿐만아니라 축하단성원들은 주체건축의 새로운 발전상이 응축된 화성거리, 전위거리도 돌아보았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희한하게 일떠선 창조물들과 인민들의 행복낀 웃음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자생자결의 정신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발전상을 다시금 체감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리순남동포는 그 어디에서나 조국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였다고, 큰 힘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성원들에게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것은 다른 지부와 달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신 길림육문중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긍지와 총련합회적으로 제일먼저 3중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녔다는 자부심이다.

물론 세월이 흘러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지만 이것은 새세대 동포들의 마음속에도 간직되어 있다.

길림시지부 성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정성관리하고있다.

나이가 많고 움직이기 불편한 로세대동포들도 조국의 명절날들이면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한 꽃다발들을 안고 길림육문중학교를 찾곤 한다.

길림지구협회 회장이며 길림시지부 지부장인 김련원동포는 지부를 단결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오랜 기간 길림지구협회 회장으로 사업한 어머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은 동포들



행사준비를 하고있는 동포들



니 황진생의 뒤를 이은 그는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동포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늘 동포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형편에 대해 알아보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그만이 아닌 김하, 박광현동포들도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발벗고나서고있다.

지부성원들은 양로원에서 지내는 로세대동포들이 적적해할세라 자주 찾아가 그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정을 두터이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에게 새로 나온 조국의 노래를 배워주고 조국소식도 알려주고있다.

지부에서는 민속명절들에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와 함께 조선음식만들기경연, 조선노래배우기 등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김련원지부장의 남편인 박영모동포는 안해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박영모동포는 지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될 때면 그 성과적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동포들이 집을 찾을 음식을 만들어내놓으며 좌석을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그래서 지부성원들로부터 《고급료리사》로 불리우고있다.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고 그것으로 단합된 길림시지부 성원들은 지부사업에 언제나 적극적이다.

김련원지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뜻깊은 고장에서 사는 길림시지부 성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조국을 위해 참되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성철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합쳐가는
길림시지부 동포들

그림처럼 아름답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승걸

온천욕과 승마운동을 할수 있고 스키도 탈수 있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 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그림같다는 말로밖에 더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청신한 공기, 어디서나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야외온천장들...

그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다 아름답다. 이런 훌륭한 곳에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생각이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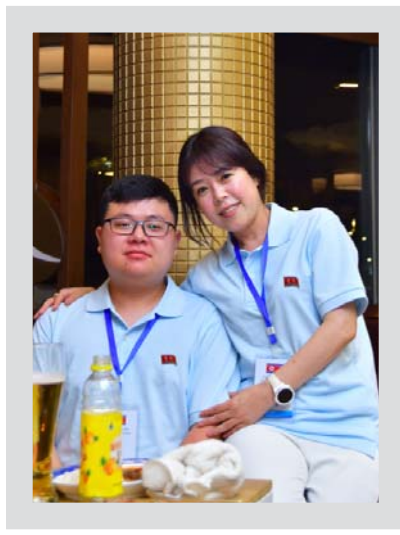
언제인가 나와 만났던 다른 나라의 한 기업가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리운액은 대단할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이것은 나 자신이 조국을 방문하면서 느낀것이다.

수십번 왔건만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 김성미

평양에 수십번이나 왔건만 올수록 자꾸만 오고싶은 곳이 바로 조국이다.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면 심장은 쿵쿵 방망이질을 하며 이름못할 감격에 휩싸이곤 한다.

조국은 부름만으로도 가슴부풀게 하는데 그 기운을 온몸에 느끼기까지 하니 그것을 한두마디로 다 설명할수 없다.

이것은 동포들 누구나 체험하는것이다.

조국에 오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듯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은 마냥 즐겁다.

그리고 절로 노래가 나온다.

진정 조국은 우리 동포들의 힘이고 긍지이며 자랑이다.

동포들 누구나 조국에 왔다가면 큰 힘을 얻었다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 이야기하곤 한다.

이역에 사는 동포들에게 힘을 주는 조국, 나 날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조국에 계속 오고만 싶다.

조국의 기억속에

조국방문의 잊지 못할 날들을 일기에 남기곤 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길림지구협의회 회장 김련원동포.

그가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여 쓴 일기의 일부를 실는다.

2025년 10월 8일

나는 오늘 또다시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조국을 방문할적마다 찾아보는 곳이지만 매번 마음이 설레이곤 한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들어설 때면 외할아버지(황백하)를 만나는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백하신생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길림지구
협의회 회장 김련원

자신의 혁명사업을 많이 도와준 혁명가이며 반일 애국렬사라고 높이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황백하신생을 치하해주시고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외할아버지의 자료들을 조선혁명 박물관에 전시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해주셨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배려속에 새롭게 꾸려진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외할아버지와 로세대 재중일군들의 사진자료와 여러 전시물들을 보면서 우리 재중의 선대일군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나도 수령께 충직한 참된 일군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였다.

사랑과 배려에 보답할줄 아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며 도리를 지킬줄 알 때 참된 인간이라 말할수 있다. 나는 외할아버지와 재중의 로세대일군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수령이 알고 조국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세계선수권 보유자들을 키운 감독

《일본땅에서 아버지가 못이룬
꿈을 조국의 품에 안겨 나는 실
현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2025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레슬링선수들은 단체 2위를 쟁취하였으며 오경령선수는 55kg급경기에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이를 두고 국내의 레슬링전문가들은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파에 대해 평가하면서 여자레슬링 발전에 기여하고있는 한 감독의 이름도 함께 떠올렸다.

그가 바로 대외경제성체육단 단장 박현철이다. 202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된 그는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라앞에 그리고 부모와 가정앞에 떳떳하기 위해 노력했을뿐입니다.》

그가 레슬링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유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현철의 아버지는 유술을 제일 하고싶어했다. 남달리 체격이 좋았고 자존심이 강하였던 아버지는 유술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고싶었다. 그러나 그 꿈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조선사람들이 유술을 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던 일본의 한 구락부

에서는 아버지에게 너무도 혹독한 요구를 들이대었던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목의 선수와 경기를 하여 이기면 유술을 계속할수 있다는 규정 아닌 《규정》이었다. 유술을 시작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던 아버지는 경기성적이 좋은 권투선수와 경기에서 그만 지고말았다.

더는 유술을 할수 없게 된 사실앞에서 아버지는 망국민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조국의 품에 안겨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대학공부를 하고 의학부문에서 일군으로 사업하는 나날에도 아버지는 지난날의 이 응어리를 가셔버릴수 없었다.

아버지는 체격도 그렇고 성격도 자기를 많이 닮은 막내아들이 자기의 소원을 풀어주길 바랐다.

현철의 소망은 곧 이루어졌다.

선수선발을 위해 학교에 찾아왔던 서성구역청 소년체육학교(당시)의 레슬링지도교원은 남달리 육체적준비가 좋은 현철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소조에 망라시켰다.

교원의 엄격한 지도밑에서 현철은 12살에 레슬링을 시작하여 몇년간밖에 전국적인 경기들에

2025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한 선수들속에는 그가 키운 체육인들도 있다.



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전도있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그가 희망의 나래를 펼칠수 있게 조선체육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여주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대외경제성체육단 여자레슬링감독, 그후에는 국가종합팀 여자레슬링책임감독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그렇수록 그는 하루빨리 우리 나라 여자레슬링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나라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임을 자각하며 맡은 일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는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을 소유하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도록 새로운 훈련방법을 연구도입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국가종합팀 책임감독으로 임명된지 3년만에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53kg급경기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박영미선수를 키워내었으며 그후에는 여러명의 아시아선수권보유자, 수십명의 국내명수들을 배출하는데 공헌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국가종합팀감독사업과 함께 한계 체육단을 책임진 일군의 중임도 맡겨주었다.

더해만지는 나라의 믿음에 그는 더 훌륭한 경기성파로 보답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경기성파로 이어질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탐구하느라 그는 늘 훈련장에서 살다

싶이 하였다. 10여년간 국가종합팀의 책임감독으로 일해오는 그에게는 하나의 지론이 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도높은 훈련을 요구하기에 앞서 믿음을 주고 정을 주어 그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선수들의 속마음도 헤아려주며 그들이 오직 훈련에만 열중하도록 친자식처럼 정을 기울여 따듯이 돌봐주며 이끌어주는 감독을 선수들은 존경하며 따랐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레슬링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도 최우수감독은 마음의 신들메를 바짝 조이며 앞으로 있게 될 경기준비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조선체육대학에 다니는 딸의 학습을 지도하고있다.

원료로 여러가지 제품을 개발하여 당과류제품을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월별로 진행하는 새 제품품평회는 맛 좋고 질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었다.

황주군옷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잠바, 솜옷, 운동복, 달린옷, 코트, 외투 등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황주》상표를 단 제품들은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다종다양한것으로 하여 군주민들은 물론 여러 공장, 기관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있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상업봉사망들과 주민지구들



에 나가 옷들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의견들을 제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여 최근에만도 남녀별, 연령별, 계절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형태의 옷제품들을 설계제작하였다.

황주군일용품공장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원가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군주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수요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각종 비누와 수지제품, 가구제품들에는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게 《황주천》이라는 상표들이 있었다.

우리는 황주천상점에서 군내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황주군 읍 20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계순희녀성은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된 《긴등별》, 《황주천》, 《황주》라는 상표가 붙은 기초식품들과 당과류들, 일용품들과 옷제품들을 보니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해졌다고 하였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문과 TV화면으로 새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구입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되었다고 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군주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향상시킬수 있게



되었으니 인민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머지않아 종합봉사소와 보건시설까지 건설되어 더 좋아질 이 고장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청과대봉굴



구석기시대의 짐승뼈화석들

증산으로 들끓는 상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증산의 봉화를 더 높
이 추켜들었다.
윤재혁지배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
난 3월 우리 련합기업소를 축하방문하시고 당 제9차
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신 우리들을 격려해주시
였습니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는 맡겨진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 일념 안고
또다시 증산과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

니다.》라고 말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 증산기세가 더욱 고조되는데 맞게 최
량화, 최적화에 모를 막고 증산의 방도를 탐구하
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일군들은 세멘트분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
쇄공정에 새로운 조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설비들의 보수도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할수 있도록 보수대상을 정확히 확정하고 매
대상별에 따르는 보수방안과 기술적대책을 면밀
히 세운데 기초하여 보수자재, 부속품, 지구 등의
보장을 선행시키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
하고있다.
생산의 기본공정을 담당한 소성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점검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나
타날수 있는 불량개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

편 랭각기의 성능을 부단히 개선하여 매일 높은
크링카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세멘트직장에
서는 중앙조종실과의 련계밑에 바가지승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교대별, 일별부가물반입량을 기준대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료직장과 분탄직장 등 다른 직장들
에서도 기능공력량을 강화하여 설비들의 정상가
동을 철저히 담보하고 성능제고로 제품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집단적혁신은 원료, 연료보장단위들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예비광량을 충분히 확보한데 기초하여 채굴설비들의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고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부림시간을 단축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석회석을 생산하고있다. 일출봉광산, 삼청광산, 화천탄광에서는 갱, 중대, 소대호상간 사회주의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련일 생산실적들을 갱신하고있다.

비상한 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으로 증산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놓았던 지난해의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 련합기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세멘트증산의 활로를 열어제기고있다.

원료직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자재,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여 세멘트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있다.

지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전진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새겨안은 상원의 세멘트

생산자들은 매일 계획보다 1.2배이상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설비현대화에 힘을 넣어

-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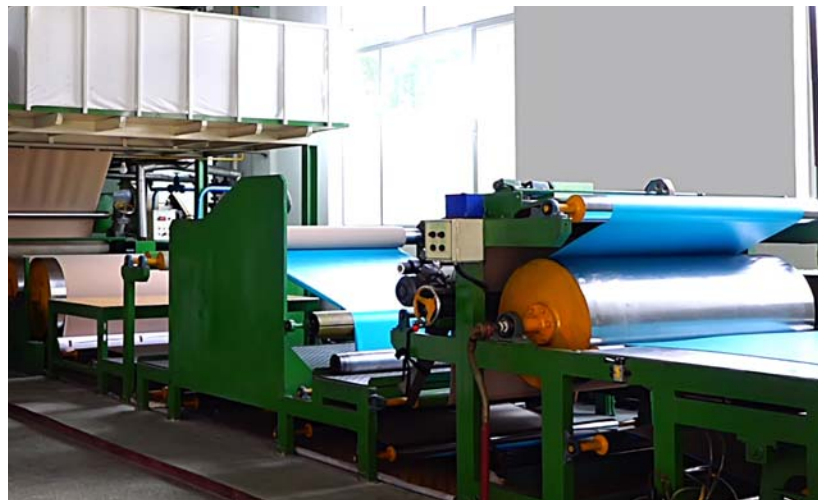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종업원들이 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판철에 펼쳐나섰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최근에만도 부직포설비의 PLC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하고 전열식건조

로를 먼적외선에 의한 열복사체 건조로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새 기술을 창안도입하였다. 그리고 건식합성가죽 생산공정에 새로운 조종장치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기본생산

공정들에 여러가지 조종장치를 설치하여 통합생산체계를 보다 갱신하였다.

한편 공장에서는 과학연구단위들과 합동하여 인쇄설비와 문양설비들을 현대화하고 폴리우레



건식도포합성가죽생산공정



검사공들이 책임성을 높여간다.

탄수지에 의한 합성가죽생산방법을 완성하여 여러가지 색깔과 문양이 배합된 질높은 합성가죽들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1직장에서는 능률높은 자동섬유혼합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부직포생산공정의 흐름선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생산능력도 1.5배로 끌어올리었다.

2, 3직장의 종업원들도 서로의 지혜를 합쳐 직접도포공정의 중창절단공정을 선진적으로 개조하고 도포액분사기에 시간조절현시판을 창안도입하여 도포의 질과 생산성을 훨씬 높였다.

어디에서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건식도포공정의 털개로라와 합성가죽두께측정장치, 배풍장치, 천필침장치 등 부분품과 장치들의 성능이 개선되어 공장의 생산능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팔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는데 따라 학생가방과 신발, 여러가지 체육기자재와 일용품생산에 필요한 합성가죽생산에서 공장은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리튬이온축전지

록색에너르기산업의 발전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날 에너기자축 및 리튬의 기본수단인 축전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창성리튬축전지제작소에서는 선진적인 리튬축전지생산기술에 의거하여 가정 및 료전기재용리튬축전지, 전동자전거용리튬축전지 등 각이한 용도의 축전지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근 10년동안 제작소는 우리 식의 리튬이온축전지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여러 종류의 축전지들을 개발하였는데 제품들은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점은 우선 제품의 수명이 오래고 같은 용량의 축전지라도 질량이 3분의 1밖에 안되며 순간에너르기방출능력이 높은것이다. 또한 열발생의 원인으로 되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차단기능과 함께 열폭발차단기능도 있어 축전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있다.

제작소에서는 전지용량, 외형치수, 보호선로기능 등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들에 각이한 출력의 독립형태양빛발전체제도 구축해주고있다.

품질이 높은 축전지로 구성된 발전체제는 종래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운영이 지능화되어있다.

제작소에서 생산되고있는 리튬이온축전지는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마두산경제연합회

마두산경제연합회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체들중의 하나이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마두산경제연합회는 2018년 5월에 설립되었다.

무역의 다각적이며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된 경제연합회는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신용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 단위들과의 뉴대를 강화해 나가고있다.

경제연합회는 마두산은행의 철저한 신용담보밑에 국제경제

지대와 에네르기 및 지하자원 개발, 《마두산》손전화기생산을 기본으로 기술무역, 가공무역, 봉사무역 등을 벌려나가고 있다.

마두산은행에서는 철저한 신용담보, 거래자중심의 금융봉사, 높은 수익성, 선진적인 류통정보화를 경영원칙으로 내세우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마두산손전화기개발제작소에서는 현대적인 제품생산공정과 최신검사측정설비들을 갖추고 독특하고 편리한 조작체계

를 갖춘 《마두산》계렬의 손전화기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수요자의 사고방식에 립각하여 만든 손전화기들은 형식이 새로우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고있다.

연합회의 사업소들에서는 귀금속을 정련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하고있으며 그 품질과 수출량은 국내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외에도 정보기술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첨단정보기술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회사들과 정보기술무역을 진행하고있다.

연합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하며 세계 여러 나라 기

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것을 경영활동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마두산경제연합회는 여러 부문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연합회에서는 조선장에 자체

육협회, 조선골프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체육협회들에 대한 후원사업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특색있는 통합병설학교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는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병설학교이다.





평양시 락랑구역 전진동지구
에 통합병설학교가 꾸러졌다.
학교는 유치원으로부터 소
학교, 초급, 고급중학교에 이
르기까지 각급 교종들을 망라
시키고 긴밀한 연계밑에 교육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할
수 있게 꾸러진 교육기관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령전교육으로부터 중
등일반교육까지를 이곳에서 받

게 되었다.
통합병설학교의 우점은 각급
교종들사이의 밀접한 연계와 긴
밀한 협동속에서 교육교양의 효
과성을 높이고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의 지속성, 연속성
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통합병설학교는 통합관리방
식을 도입하여 관리기구와 직
제를 간소화하고 교육관리의 효
율을 높이는것과 함께 교육조건
과 환경을 실용적으로, 경제적

으로 구축하고 리용할수 있는
우점도 가지고있다. 그리고 교
종별, 연령별학생들의 세계관
과 지능발전과정에 대한 지속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그에
따르는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조건과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교
육과학연구사업과 도입에 유리
한 조건도 가지고있다.
학교에는 현대교육발전추세
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
설비와 체육기재들, 교구비품

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실험실습실들도 교종별에 따
르는 다방면적이고 전문적인 지
식을 배워줄수 있도록 꾸러져
있다.
배운 지식을 실험을 통해 공
고히 할수 있는 화학실험실, 물
리실험실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인공지능교
육실,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재
간을 배워줄수 있게 모든 교육
설비들과 실험실습기재들이 갖

추어져있는 목공실습실과 식료
실습실, 가상현실체험실 등 세
분화되어있는 모든 실험실습실
들의 교육조건은 완벽하다.
이뿐이 아니다.
복도에는 풍부한 상식을 주
는 여러가지 형식의 직관물들
이 게시되어있으며 홀들마다에
는 력사와 지리, 수학과 물리
등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꾸러져
있다.

특히 학교건물우의 야외학습
터는 태양빛전지판들과 여러가
지 상식직관물들, 록지와 의자
등 학습과 휴식에 필요한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있어 통합병설
학교로서의 특색과 면모에 잘
어울리고있다.
통합병설학교에는 종합강의
실과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
시설인 체육관도 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철진



꼬마가야금연주가

《어린 나이에 저렇듯 훌륭한 가야금연주습씨를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번에 또 한명의 신동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지난해에 열린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다.

그가 평가한 꼬마연주는 형제산구역 전위2유치원에 다니는 박유진어린이이다.

남달리 음감이 빠르고 감정이 풍부한 유진이는 말을 떼기 시작했을 때 벌써 TV와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한번 듣고도 곡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고 한다. 유진이의 모습은 가정에 기쁨을 주었고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음악가로 키울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유진이의 재능의 싹은 전위2유치원에 다니면서 더욱 자라나게 되었다.

유진이에 대한 교육과정에 육체적준비로 보나 음악적감수성으로 보나 가야금을 배워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정향옥 교양원은 부모와의 토론끝에 그에게 기초교육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훈련과정에 어린 손가락들에 물집이 생기고 그



유치원에서 가야금을 배우고있는 박유진

것이 심해져 빈번히 병원출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진이의 어머니 원옥경은 《처치를 받으며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그만둘 생각까지 하였습니다.》라고 그때를 회상하였다.

그러한 때 부모들의 생각을 바꾸게 한 계기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유진이의 어머니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모든 공연종목들이 훌륭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야금병창은 유진이의 어머니는 물론 관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끓길줄 모르는 열광적인 박수갈채는 유진이의 어머니로 하여금 가야금의 매력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하였다.

흔들리던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금 가다듬어진것과 함께 유진이의 가야금훈련도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같은 반의 아이들이 소꿉놀이

로 시간가는줄 모를 때 유진이는 가야금연습에 극성이었다. 그러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루만이라도 쉬자고 한적이 있었다. 그때 유진이는 오히려 빙긋 웃어보이며 자기도 상급반수나들처럼 축전에 참가하여 1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끌었다고 한다.

이러한 나날속에 유진이는 구성지면서도 탄력있는 가야금의 음질을 살릴수 있는 룡현, 각이한 조선장단의 리듬을 원활하게 연주하는 산조형식의 연주법들을 짧은 기간에 터득할수 있었다.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8개월후 유진이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 참가하여 1등을 하고 연기상까지 받았다.

축전무대에서 그는 박력있는 리듬을 타고 노래 《래일 위해 힘을 키우자》를 멋들어진 룡동과 원활한 연주로 완벽하게 형상하였다.



박유진은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훌륭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었다.

관람자들과 심사위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은 박유진 어린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김성영
사진 김영호

상식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몇가지



- 듣는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한다. 학습과 자체사색을 해야 뇌가 단련된다.
- 깊이 잠들고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 뇌를 조절하는 자기식방법 레하면 음악감상,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것이다.
- 영양에 관심을 돌리고 충분한 량의 비타민과 적당한 량의 광물질을 보충하여 동맥경화를 막아야 한다.
- 손을 뭉수룩 잘 놀려야 한다. 손이 제2의 뇌수이기때문이다.
- 주위환경에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 각이한 나이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특히 젊은이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 * *



일성 《학부형들》

- 리상신용은행 -



리상신용은행 총재 민명학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돕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을 자기 단위 일처럼 여기며 교육후원에 진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리상신용은행 총재 민명학과 종업원들도 있다.

지난해 4월초 어느날 한사람이 평천구역 북성고급중학교 정문으로 들어섰다.

지방출장을 끝내고 평양에 올라오자마자 이곳 학교로 향한 리상신용은행 총재 민명학이었다.

교장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난 그는 《학교의 후원사업을 새로 맡았는데 걸린 문제를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교장은 비록 초면이었지만 무척 후더운 인사말에 첫인상부터 그 일군에게 존경과 믿음이 갔다.

교장과 함께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총재는 어느한 방 앞에 멈춰섰다. 방의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고난 그는 수첩에 교구비품명세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책상 24개, 의자 48개, 교탁 1개, 출입문 1개...

그만하면 다 완비되어있는 방의 교구비품들을 적은 후 다시 확인하는 그를 보며 교장은 의아해하였다. 그러는 교장에게 그는 후대들을 위한 일인데 이왕이면 더 좋은 교구비품으로 꾸려주자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새것으로 교체하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교구비품들과 실험기구들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학교에 들어섰다.

교원, 학생들모두가 은행의 종업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들속에는 총재가 없었다. 그날도 그는 출장길에 올랐던 것이다.



평천구역 북성고급중학교를 찾은 리상신용은행 일군들

후날 한 종업원의 말을 통해 교구비품들과 실험기구들이 마련된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교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실 은행은 새 건물로 자리를 옮긴지 몇달 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아직 사무실을 채 꾸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 학교부터 지원하자고 하면서 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섰던 것이다.

그들의 앞장에는 늘 총재가 있었다. 그는 리상무역회사 사장의 직무까지 겸임한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어느한 목재공장에까지 나가 세심하게 마음을 썼으며 교구비품과 실험기구들을 가

져갈 때에는 설치할 사람들까지 보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직책이나 직무에 앞서 열성적인 《학부형》, 후원자라는 자각을 먼저 안고 교육사업에 진정을 기울이는 리상신용은행의 총재와 종업원들.

정말 고맙다고 학교의 교직원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총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우리야 이 학교의 후원단체이고 학생들의 <학부형>이 아닙니까.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돕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을 사심없이 책임적으로 도와주고있는 이곳 일군들을 두고 학교의 교원들은 우리

《학부형들》이라고 정답아 말하고있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있는 리상신용은행 일군들



리상신용은행은 2025년 12월 교육후원기금증서를 수여받았다.

어린 생명을 위해 바친 47일

지난해 10월 2일 저녁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당한 어린이가 평안남도소아병원으로 실려왔다.

이름은 허예연, 나이는 2살.

전신 30%에 3도화상, 의식이 전혀 없는 쇼크상태...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등 모든 생명지표들이 그야말로 소생불가능을 말해 주고있었다.



평안남도소아병원
원장 원성희

포기할수 없다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을 과연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원성희원장의 머리속에 불현듯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수많은 출판물과 편집물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었던 화상을 당한 방하수소년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1960년대의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전신 48%에 3도화상, 그것도 상반신의 살이 다 떨어져나간 8살의 어린 소년을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서슴없이 바쳐 소생시켰었다.

생각할수록 그때의 보건일군들이 자기를 지켜 보고있는것만 같았고 나라에서 아끼는 어린 생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들의 절절한 당부가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었다.

결심을 내린 원성희원장은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허예연어린이의 부모가 우리를 바라보고있습니다. 방하수소년을 살려냈던 천리마시대의 보건일군들처럼 어린 생명을 기어이 살려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원성희원장의 목소리는 의료일군들의 마음을 세 차게 흔들어놓았다.

사지외과 의사 리선남이 담당의사가 되기를 자진해나섰고 기술부원장 리봉춘, 사지외과 과장 동철훈을 비롯한 우수한 의료일군들로 치료조가 무어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집중치료실에서는 어느 한시도 불이 꺼질줄 몰랐고 만사함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무수히 생겨나게 되었다.

정성은 기적을 낳는다

체온과 맥박, 호흡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해당한 구급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쇼크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는 치료실에서는 분분초초의 긴장한 시간이 흘러가고있었다.

때없이 의사협의회가 열리고 집체적토의끝에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였어도 겨우 2살밖에 안되는 애어린 환자인것으로 하여 수시로 변하는 병상태는 좀처럼 생사여부를 가늠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어린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선남의사에게 환자의 아버지 허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우리 예연이가 살수 있습니까?》

가정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은 그에게 있어서 첫 자식인 예연이는 집안의 웃음이고 기쁨이었다. 하루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면 쌓인 피로도 다 사라지곤 하던 그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선남의사는 《그때 나를 바라보는 기대어린 눈빛에서 의료일군의 의무를 다한다는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회상하였다.

선남의사는 나약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에게 힘을 주며 과장 동철훈, 의사 오현희, 간호장 동은정 등이 분발하였고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환자치료에 합세하였다.

이들의 정성에 의해 쇼크상태에서 하루도 넘기 힘들것이라던 환자는 12일만에 의식을 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앞에는 넘기 어려운 고비가 그후에도 련이어 다가섰다. 환자의 생

명지표는 때없이 하강선을 그었고 그때마다 의료일군들은 죽음의 나락에서 그를 한번 또 한번 이끌어냈다.

시급히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피부가 요구되는 수술이었다. 이때 남면저 수술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원성희원장과 리봉춘기술부원장이였다.

이어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앞을 다투어 수술장으로 찾아왔다. 누구도 돌려세울수 없었고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예연이의 아버지 허현철은 《수술장으로 달려온 사람들속에는 우리 혈육이나 가까운 친척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생면부지인 예연이에게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떼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이렇게 의료일군들의 정과 사랑이 어린 환자에게 바쳐졌다.

이뿐이 아니였다.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된 후에도 의료일군들은 스스로 예연이의 부모, 보육원이 되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이런 날과 날이 흘러 예연이의 병상태는 나날이 호전되었으며 47일만에는 건강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었다.

예연이가 병원에 입원한 47일간, 이 나날 산골군의 평범한 노동자가정의 한 어린 생명을 위해 무려 30여차례의 의사협의회가 열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5 800cm²의 피부를 바쳤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피부이식수술과 관련한 협의회를
진행하는 의료일군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중앙병원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하는 의료일군들

효능높은 《벌꿀》 기능성제품들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치약을 자주 바꾸어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치약을 오래동안 사용하면 입안에서 기생하는 병원균에 내성이 생겨 치약의 멸균 및 이발 보호작용이 약화되기때문입니다. 기능성치약들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벌꿀과 고려약재를 배합하여 다기능성치약인 천연물치약을 개발하였습니다.》라고 조선상원 무역회사 천연제품기술개발소장 김연희는 말하였다.

천연물치약의 특성은 미백작용이 강하면서 이물염, 입안염 등 여러가지 치과질병들을 종합적으로 해소시켜주어 이발을 튼튼하게 해주며 사용과정에 내성

이 생기지 않는것으로 하여 오랜 기간 그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제품으로 등록된 천연물치약은 지난 시기 국내의 여러 축전과 전시회,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열린 10여차의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들에 출품되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개발당시 소장 김연희와 그의 연구집단은 기능성치약들에 대한 국내외자료들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에 다기능성천연물치약개발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이미 천연광복항균제로서 독특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벌꿀의 효능에 매력을 느끼고있던

개발집단은 벌꿀을 주원료로 새로운 치과위생용품을 만들 착상을 가지고 새 제품개발에 나섰다. 벌꿀에서 유효성분들을 정밀추출하고 30여가지의 고려약재들을 제조하며 합리적인 배합비를 결정하는 등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 이들은 이 연구에서 단번 성공하였다.

오늘 개발소에서는 벌꿀추출물을 리용한 살결물, 샴푸, 린스 등 천연기능성제품의 품종들을 확대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천연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기지

빙상관





무용실



육체훈련실

평양시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만에 자리잡고있는 빙상관이 개건되었다.

박정만판장은 《4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빙상관이 문명부흥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뜻깊은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스케트모자를 형상한 본관의

부의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현대적인 마감건재로 장식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빙상관내부도 일신되었다. 무용실 및 육체훈련실, 감독실, 선수휴게실, 치료실 등이 꾸려져있다.

개건된 빙상관에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연수에 의한 얼음조

성설비가 갖추어져있어 종전보다 얼음조성시간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얼음의 질을 높은 수준



선수휴게실에서

에서 보장하고있다.

빙상관의 실내온도도 알맞춤하게 조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선수들과 관람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건을 통하여 빙상관은 겨울철체육종목은 물론 롱구와 배구, 권투, 예술공연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불과 몇시간이면 필요한 용도에 맞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좌석수도 조절할수 있어 대단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3차원동영상을 투영시킬수 있는 고화질레이저투영기, 경기실황중계와 선수소개, 동영상방영 등 여러가지 현시기능을 가진 4면대형레드전광판, 수백개의 조명설비들이 설치되었다.

경기용고성기, 각종 초저음

고성기, 관람석고성기들이 설치되고 립체음향체계에 의하여 음악을 감상할수 있으며 빙상관 내부벽면도 음향효과를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제9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빙상회경쟁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끈 대성산체육단 감독 김현선은 《개건된 빙상관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룰동과 능숙한 회전, 난도높은 조약 등 빙상기교들을 은반우에서 잘 보여줄수 있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10월 평양국제빙상회거축전에 참가하였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훌륭히 꾸려진 빙상관에서 자기들의 경기모습을 펼쳐보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오늘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회지로 개건된 빙상관에서는 다양한 체육행사들과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어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리영철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개건된 빙상관의 내부



전통적인 백화리용풍습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져 오늘까지 문화유산으로 련면히 계승되고있는 전통적인 백화리용풍습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꽃의 관상적가치뿐 아니라 그 약용가치도 매우 중시하면서 여러가지 식생활풍습을 창조하여왔는데 그가운데서 백화리용풍습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100가지 꽃으로 빚었다고 하여 백화술이라고 하는 이 술을 민간에서는 《령단보약》이라고 하였으며 《백가지 꽃으로 술을 빚어 마시면 백병이 나아서 백살을 살수 있다.》는 말도 통용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백화술의 약리적효능뿐 아니라 독특한 양조법도 후세에 남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봄부터 가을에 피어나는 복숭아꽃, 살구꽃, 냉이꽃, 구기자꽃, 국화에 이르는 100가지의 꽃을 따서 그늘에 말리웠다가 그것을 모시자루에 담아 독에 넣고 술을 빚었습니다. 이때 물을 중히 선택하였는데 특별히 강북관에서

떠온 물이나 돌틈에서 용솟는 샘물을 리용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 양조법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있습니다.

현시대 과학기술은 꽃이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광물질, 핵산 등 영양 및 약리성분들이 고기류나 낱알류에 비할바없이 풍부히 들어있는 특색식료품원료, 천연약재라는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제조되고있는 백화술은 지방마다 빚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사는 리은경할머니는 매해 5월부터 8월까지 꽃들을 채취하여 10여년간 백화술을 빚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복용하고있는 할아버지는 70이 넘도록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백화술과 인연을 맺고있는 가정들이 늘어나 어디 가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펼쳐놓고있습니다.

현시기 백화술은 그 조법이 더욱 완성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라선시에 위치하고있는 백학산식료종합가공공장에서

는 전통적인 양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백화술을 더욱 좋게 만들고있습니다.

공장의 기술원 장미옥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10여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백화술양조법에 대한 실용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술은 201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대로 백화술을 오지독(1등급)에서 4년이상 원술로 지하숙성시키고있습니다.

주목되는것은 100여가지의 꽃품종들을 인체의 면역을 높일수 있는 약용식물의 꽃으로 선택하고 그 배합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표준화, 규격화한것입니다.

또한 백화채취방법에서 7가지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라선시의 유명한 명당골샘을 리용한것 등은 백화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이렇게 양조된 백화술은 천연꽃이 가지고있는 필수아미노산, 각종 비타민들과 필수미량원소들, 여러가지 고려약성분들을 거의나 그대로 함유하고있습니다.

공장의 백화술생산방법은

2016년 라선시 제31차 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으며 백화술은 제7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에서 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백학산식료종합가공공장의 백화술은 오늘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속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라선국제상품전시회와 라진-흑룡강성상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에서 백화술은 외국인관광객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에서 백화술을 맛본 한 외국의 인사는 머리속에 항상 떠올려보던 귀한 맛을 느낀 심정이라고, 술의 향기와 맛이 너무 진하고 독특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화리용풍습은 2016년 5월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53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조국에 오시는 기회에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백화술의 진맛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특한 풍미를 한껏 느끼게 될것입니다.

글 강소현
사진 리영철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8)

삼지연



삼지연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두용암대지의 밀림속에 있는 풍치수려한 호수이다. 삼지연시 중심지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세개의 못이 가지런히 놓여있다고 하여 삼지연이라고 불려온다.

삼지연은 이 부근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백두산화산과 그 주변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용암에 의해 막혀 이루어졌다. 삼지연의 못들이 이루어진 다음 백두산화산에서 분출된 부석이 쌓여 그 형태가 적지 않게 변화되었다.

삼지연에서 제일 크고 남서쪽끝에 있는 못을 1호못이라고 부른다.

1호못의 가운데에는 푸른 숲이 우거진 섬이 있다.

1호못의 북동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못을 2호못 그리고 2호못의 북동쪽 약 370m 되는 곳

에 있는 못을 3호못이라고 부른다. 1호못과 2호못사이에는 작은 다리가 있다.

못들의 기반암은 현무암으로 되어있으며 지표면으로부터 땅속 3~5m깊이까지는 부석층으로 되어있다.

삼지연은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닫힌호수이다. 최대물깊이는 3.8m이며 평균깊이는 1.8m이다. 집수면적은 약 4km²이다.

삼지연의 못들에는 물풀들이 자라고 삼지연붕어, 종개, 산천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있다.

삼지연은 물이 맑고 변두리에는 이깔나무, 자작나무, 사스레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울창한 원시림이 아득히 펼쳐져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삼지연은 1980년 1월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등록되어 보호되고있다.

매물목

백두산지구에서 나타나는 매물목은 이 지구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이 천년기대분출시기 공중락하부석들에 의하여 묻힌 잔해이다.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주변과 대연지봉을 비롯하여 백두산지구의 여러곳에서 나타난다.



탄화목



탄화목은 화산지대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화산쇄설물들에 묻혀 탄화되어 형성된것으로서 특이하게 화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다.

백두산지구에서 탄화목들은 소백수계곡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나타난다.

매물목과 탄화목은 부석의 분출년대결정과 부석분출이전시기의 산림생태계연구, 고기후연구, 화산분출에 의한 피해감소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

이처럼 백두산지질공원에는 백두산의 화산지질학적특성과 지질다양성을 보여주고 커다란 과학적가치를 가지는 많은 지질유적들이 분포되어있다.

백두산지질공원구역은 삼지연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다.

백두산지질공원은 화산분출작용에 의하여 형

성된 자연풍치가 공원구역의 인문경관과 잘 결합되어 특이한 생태와 력사, 문화적가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지질유적들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리, 지역의 경제, 문화 등의 지속적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백두산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됨으로써 조종의 산 백두산의 지질학적의의와 관광적가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유모아

장님의 등불

한 장님이 밤에 집을 나서면서 마누라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에 와있던 손님이 물었다.

《아니, 앞 못보는 봉사님이 등불은 왜 가지고가시오?》

《홍, 그런 말 마오. 앞 못보는 나보다 눈뜬 사람들이 가끔 가다 부딪칩디다. 그래 내가 <여기 사람이 가오.> 하는 표시로 등불을 들고가려는거요.》

* * *



쑥떡에 깃든 사연

(전호에서 계속)

병세가 씻은듯이 사라져가자 범이는 자기때문에 지금껏 애쓰며 고생해온 솔메를 위해주느라 두손을 걷고 땀나무도 해오고 하루종일 받김도 매며 집안일에 발벗고나섰다.

그러나 솔메는 반가와할 대신 오히려 남편을 나무람하였다.

《제가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쓴것은 우리 한가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쑤를 어느때든 꼭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있었기에 제가 당신을 위해 지성을 기울인것이에요. 이제 또 외적들이 쳐들어올수 있으니 당신은 집걱정은 아예 말고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달맞이산으로 들어가 무술을 익히도록 하세요.》

《솔메, 그 깊은 마음을 내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려. 사내대장부로서 솔메의 소원을 꼭 풀어 주겠다는것을 맹약하우.》

범이는 가슴속에서 불몽치같은것이 몽클 치밀어올라 뒤말을 잊지 못하고 솔메의 두손을 꼭 그려잡았다.

그 다음날부터 범이는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말타기와 칼쓰기, 활쏘기와 창던지기 등 무술을 익히며 외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이렇게 무술을 런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는 젊은 시절의 기상이 되살아나 집채같은 바위도 단숨에 들어올렸고 산중의 호랑이도 무색할 정도로 힘준한 산발들을 씩씩 타고다녔다.

쑥골마을사람들은 다시금 튼튼한 무사로 변모된 범이의 모습을 보고 솔메의 지극한 지성과 바위처럼 굳센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예로부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

운다고 하더니만 솔메의 지극한 정성이 쑥떡을 낳았고 그 쑥떡이 범이의 속병을 말끔히 털어냈구만.》

《그렇고말구요. 강의하고 이악한 솔메가 아니면 누가 할수 있었겠소. 범이를 다시 무사로 내세운것만 봐도 과시 솔메는 치마두른 대장감이라 할수 있네.》

마을로인들이 솔메를 칭찬하자 녀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서로들 끼어들었다.

《그럼요. 솔메야말로 우리 쑥골마을의 복덩이예요. 그는 자기 손으로 제 복을 찾았어요.》

《글쎄 범이어른이 새서방적보다 더 젊어보이고 또 튼튼한 무사로 되었으니 정말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럽구만.》

녀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고있던 솔메는 정색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그 집들에서야 남편들을 먼저 싸움터로 떠밀어보내지 않았됐나요. 저도 이 쑥골에 태를 묻고 자랐으니 응당 자기 할 도리를 해야겠는데 지성이 모자라다니 그렇게 못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제는 제 남편도 땀땀하게 싸움터로 내보낼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솔메!...》

마을녀인들은 솔메의 손을 서로 잡으며 그의 깨끗한 마음에 감동되어 뜨거운 눈물을 삼키었다.

얼마후 또다시 외적들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쑥골에 와닿자 범이는 곧 싸움에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솔메는 싸움터로 떠나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쓰던 장검을 내놓으며 당부하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아야할겠다는 마음 안고 당신에게 의탁했던 뜻을 오늘에야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제비둥지가 깨지면 알이고 새기

고 살아날수 없는것처럼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나라가 없으면 한집안의 행복도 바랄수 없지 않소이까? 집걱정은 마시고 외적들을 모조리 쳐부시고 몸성히 돌아와주소이다.》

《내 솔메의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외적들이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쫓아버리고 돌아오겠소. 잘 있소.》

범이는 솔메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준 다음 준마에 올라 채찍을 날리며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달맞이산에서 무술을 런마한 마을장정들과 함께 범이는 외적의 무리를 맞받아나가며 장검과 창을 번개같이 휘둘렀다.

사나운 범의 기상을 하고 족쳐대는 범이앞에서 외적들은 삼대처럼 쓰러졌다.

《호랑이같은 장사가 나타났다.》

흔비백산한 외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들을 내던지고 줄행랑을 놓았다.

《외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범이는 소리를 지르며 군사들과 함께 말을 달려 도망치는 적들을 무찔러 멀리 지경밖으로 쫓아버렸다.

범이에게 어찌나 혼살이 났던지 외적들은 쑥골

마을에 범같은 장수가 났다고 별벌 떨며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속병이 들어 약해진던 범이를 무적의 장수로 되게 한 향기롭고 빨리 쉬지도 굳어지지도 않는 쑥떡은 눈맛도 좋고 입맛도 있으며 더우기는 위병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그후부터 쑥골마을 사람들은 즐겨 만들어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쑥골은 병이 없는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으며 쑥떡을 많이 빚어먹는다고 떡섬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쑥떡은 점차 마을과 마을을 넘어 다른 지방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쑥떡은 속병에 특효가 있어 간을 보호하고 위장치료에 좋을뿐 아니라 뱀병과 부인병, 고혈압과 기관지염 등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쑥이 돌아나 자라는 봄에는 물론이고 여름, 가을이나 겨울에도 햇쑥을 잘 말려 위두었다가 별식으로 쑥떡을 빚어먹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기게 되었다.

(끝)



장기수풀이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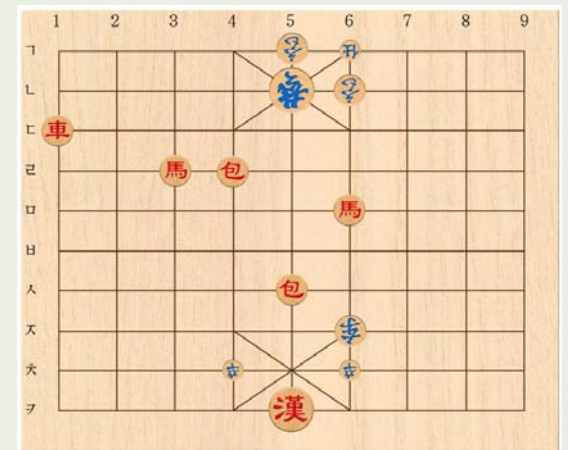
장기격언

졸도 제 지식

비록 공격과 방어에 참가하지 못하고 외로이 있는 《졸》이라고 해도 아끼고 지키라는 뜻이다. 이 말은 큰 《쪽》만을 중요시하고 《졸》의 위력과 생사에 대해 무시하고있는 초보자들과 애호가들에게 강조하는 교훈적인 말이다.

장기수풀이 (39)에 대한 답

ㄷ2차ㄴ5, ㄱ4궁ㄴ5, ㄸ8말ㄴ6, ㄴ5궁ㄴ6, ㄷ7포ㄴ1, ㄴ6궁ㄴ6, ㄴ2병ㄴ2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